

# ‘채광창 넘어’ 들어온 원고들의 운명

쏟아지는 투고원고 선별에 편집자들 몸살 ... 기획 타당성 검증의 기회이기도

“모든 출판사에는 우편으로 도착한 엄청난 양의 원고들이 미처 분류도 되지 못한 채 그대로 쌓이는 것이 다반사였다. ...모든 원고들이 다 책으로 꾸며지는 것은 아니었다. 사실 중견 편집자의 관심 범위에 드는 원고들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보수도 많이 받는 전문편집자들이 가망없는 원고들 때문에 귀중한 시간을 뺏길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평균적으로 따지면 대체로 각 출판사마다 ‘채광창 넘어’ 들어온 9백편의 원고 중 단 한편만이 책으로 발간되는 것이 일반적인 통계였다. 그러나 여러 출판사에서 퇴짜 맞은 원고들이라 해서 베스트셀러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었다.”

제임스 미치너의 《소설》(열린책들, 1992)에 나오는 대목이다. 자신의 책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출판사로 보내오는 원고더미를 처리하느라 고충을 겪는 것은 미국 유수의 출판사나 우리나라 출판사나 다를 바가 없다. 물론 그 양에 있어 차이가 있고 또 그것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기는 하다. 미치너의 《소설》에서는 출판사에 입사한 주인공이 처음으로 맡은 일이 투고원고 처리하는 일인 반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출판사에서는 이 일을 편집장이나 기획책임자가 맡는다.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는 투고 원고들 덕분에 기획, 편집, 홍보, 제작 등 출판사 업무의 전반적인 것들을 다 처리해야 하는 우리나라 출판관계자들은 원고를 검토하기 위해 업무시간 외의 시간을 내야 할 정도다.

## 책 내리는 사람 갈수록 늘어

‘협박형’ ‘음수형’ ‘설득형’ 등 원고를 출판사에 보내는 사람들의 태도도 다양하다. 한 출판사의 편집장은 최근 투고 원고들이 급증하는 현상에 대해 고학력자가 늘고 우리 사회의 문화수준이 향상된 것을 한 이유로 꼽는다. 컴퓨터 보급의 확산이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을 없앴을 수도 있고, 여기에서 ‘책 한 권 잘 쓰면 돈 번다’는 한탕주의 경향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으리라는 아픈 지적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출판사들은 이 투고 원고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 출판사의 규모나 체제, 성격에 따라 처리방식이 조금씩 달라진다.

**자신이 선별한 원고가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것은 편집자에게 더할 나위 없는 행운이다. 더욱이 원고의 가능성을 읽고 재편집하는 과정, 편집자로서의 감각을 키우는 훈련, 기획의 타당성을 검증할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는 원고 선별작업은 진정한 에디터로 성장할 수 있는 과정이기도 하다.**



한 출판사의 원고선별 작업.

문예지나 잡지를 병행 출판하고 자체 기획위원이나 편집위원이 있는 이른바 메이저급 문학전문출판사들은 그나마 원고 검토 작업이 얼마간 체계를 갖춘 경우다.

민음사(대표 박맹호)의 이영준 주간은 한달 평균 장편소설 15편, 시집 5-6권 분량과 이밖에 단편이나 중편, 시들이 부지기수로 들어온다고 밝힌다. 물론 학술원고도 한달에 2-3권 이상씩은 들어온다. 편집부 각 담당자의 예심과 편집주간 등 책임자의 2차 검토를 거친 후 가능성이 보이는 원고는 편집위원이나 기획위원에게 검토를 의뢰한다. 더 전문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는 전문가에게 검토료를 지급하고 의뢰하기도 한다.

창작과비평사(대표 김운수)는 시·소설 등 문학작품은 각 분과별 예심위원의 예심을 거쳐 기획·영업·편집이 함께 참여하는 편집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한다. 아동문고는 편집위원이나 자문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결정하며 단행본은 편집부의 일차 심사와 편집회의를 거쳐 간부회의에서 최종 결정하는 수순을 밟는다.

기획실을 따로 둘 형편도 아니고 기획위원이나 편집위원도 없는 많은 출판사들은 전적으로 편집부 내부에서 분담해 투고 원고들을 소화한다. 편집장의 책임하에 편집부

원들이 원고를 돌려보고 사장이 최종 결정하는 형태. 사안에 따라 가끔씩은 외부의 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하기도 하는데, 공식적인 채널을 통하기보다는 인맥을 활용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사장이 이럴 경우 편집장들의 업무부중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베스트셀러를 낸 출판사라면 들어오는 원고가 급증한다.

문이당(대표 임성규)은 《아버지》 이후로 한달 평균 10건 정도는 출판의뢰를 받는다. 아직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은 이 출판사에서는 외부원고 검토에 편집부 전원이 매달린다. 짬이 나는 대로 분담해서 검토하고 회의를 통해 출판을 결정한다. 웬만한 장편 한편 읽는데 하루 꼬박 걸리고 다음날 만나질까지 평가작업에 매달린다. 원고검토 작업도 편집자의 일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투여하는 시간에 비해 소득은 적다.

여러 건의 자전 에세이를 히트시킨 한 출판사에는 “내 인생도 기가 막힌다”며 자전 에세이 출간을 의뢰하는 상담전화까지 쇄도한다. 의뢰자 가운데는 인쇄소와 출판사를 같은 업종으로 볼 정도로 출판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 이들의 상담을 받아내느라 담당자는 지치기도 한다.

해냄출판사의 박광성 주간은 대부분의 투

고 원고들이 흐름을 앞서가기보다는 뒤쫓는 것들이어서 출판으로 직접 연결되는 비율이 적다고 사정을 밝힌다. 가령,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잘 나가면 비슷한 원고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식이다. 이같은 사정은 다른 출판사도 마찬가지여서 투고작들의 90%는 베스트셀러의 아류작으로 보면 된다는 분석도 있다. 이들 가운데는 출판사의 성격이나 지향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잘못 투고해 반려되는 경우도 있지만, 문법상의 오류가 허다하고 문장의 ‘기본’도 안된 글도 적지 않다. 사정이 이런 만큼 투고 원고 가운데 실제로 출판으로 연결되는 비율은 극히 미미하다. 비교적 비율이 높은 출판사가 10%이고 나머지는 대체로 그 미만이며, 1%도 안 된다고 밝히는 출판사도 많다.

## 베스트셀러로 거듭난 ‘업동’ 원고들

한편,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점가의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오른 책 가운데 바로 이런 ‘업동’ 책들이 많아 흥미롭기가 지하다.

《아버지》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돈 좀 벌어봅시다》 《돈버는 데는 장사가 최고다》 《헨리 홍의 영어발음 구구단》 《헤르메스의 기둥》 등이 그것.

무명작가 김정현을 일약 ‘스타 작가’로 등

극시킨 《아버지》는 여러 출판사를 거쳐 문이당에서 출판된 케이스. 편집부 만장일치로 출판을 결정하고 이문열·박덕규씨에게 가능성 여부를 의뢰했더니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 출판하게 됐다는 후문이다.

공인회계사 김희상씨는 《돈 좀 벌어봅시다》의 원고를 들고 한 출판사를 찾아가다. 그 출판사 관계자가 '길벗' 출판사를 추천했고, 원고를 본 사장이 편집부원들에게 돌려 읽고 주변의 친구들에게도 모니터를 청했다. "투기 조장하겠는데"라는 말이 나올 만큼 반응이 좋아 출판을 결정했다. 이 책이 가진 핵심적인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편제가 필요하다고 생각, 저자와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목차와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

"경험자의 입장에서 경기변동에 따른 재테크의 방법론을 제시한 이 책의 장점이 저자와 협의를 통해 충분히 살아난 것이 성공의 비결"이었다는 분석이다.

《헨리홍의 영어발음 구구단》은 저자 헨리홍씨가 소설 원고를 들고 한뫼출판사를 찾아온 것이 계기가 됐다. 한뫼출판사에서는 마침 새로운 영어학습서를 기획하고 저자를 물색하던 중이었는데, 저자와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그가 영어발음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저자의 원래 의도와는 달라졌지만 그는 책을 출판했고 승승장구하고 있다.

문학동네의 김철식씨는 쌓이고 넘치는 투고 원고 가운데 눈길을 끄는 한편의 장편을 발견했다. 《헤르메스의 기둥》이 그것. 저자를 만나보니 역시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편집위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초여름부터 수정 작업에 들어가 12월에 출간했다.

#### 원고 없이 사고하는 것은 위험

자신이 선별한 원고가 출판돼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것은 편집자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행운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서 어쩌다 터질지 모를 '베스트셀러'를 기대하며 출판사 관계자들이 원고검토 작업에 매달리는 것은 아니다.

《돈 좀 벌어봅시다》의 출판을 책임졌던 길벗출판사의 한기웅씨는 "어떤 원고의 가

능성을 읽어내고 이를 재편집하는 과정이 다이나믹하고 편집자로서의 성취감을 맛보게 해주었다"고 소감을 밝힌다. 아울러 이런 원고 검토작업이 좋은 원고를 선별할 수 있는 편집자로서의 감각을 키우는 훈련이라는 생각을 전한다. 많은 출판사의 편집자들이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투고 원고를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여기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민음사의 장은수 편집장은 "원고 없이 사고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하며 외부원고 검토가 출판으로 이어지는 가시적인 소득 외에도, 필자의 수준이나 독자들의 감각을 읽어낼 수 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획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한다.

"수준 이하의 원고들을 읽어다가 보면 업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다"는 하소연을 하면서도 우리나라 출판사 관계자들이 외부원고를 검토하는 작업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은 반감기 그지 없다. 특히 이들이 진정한 에디터로서 성장하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더욱 그렇다.

다만 이들의 갈망을 채워주기에는 우리나라 출판사들의 환경이 지극히 열악하다는 사실이 우울하다. 한 출판사의 편집자는 일본 출판사가 편집자에게 주는 '안식년'을 부러워한다. 또 한사람은 출판사에 들어온 이후 기획과 편집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찾아봤지만 없다고 안타까움을 전한다. 그리고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경영자의 결정권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보건적'인 우리나라의 출판경영형태가 편집자의 자율성과 능력 발휘를 가로막는 요소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

쏟아져 들어오는 외부원고를 검토하는 일은 결국 그 일을 전담하는 인력을 확보하는 나 안하느니의 문제보다는, 편집자들이 원고를 편집권을 가지고 선별해 그것을 책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경영주가 얼마나 뒷받침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 박남정 기자



지난 2월5일 한국일보사 송현클럽에서 가진 '한국출판문화상' 수상자들.

## '한국출판문화상'에 신용하·이영란 교수

한국일보사가 주최하는 제37회 '한국출판문화상' 저작상 수상자로 신용하(서울대)·이영란(숙명여대) 교수가 선정됐다. 사전·문고·전집·번역 등 모두 12개 부문으로 나누어 수상하는 출판상에는 단국대출판부 등 21개 출판사와 안삼환(서울대 교수)·김성도(서울대 강사)씨가 선정됐다.

지난 5일 한국일보사 13층 송현클럽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나춘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정진숙 한국출판금고 이사장·김경희 한국출판연구소 이사장 등 출관계 인사 및 관계자 1백50여명이 참석, 수상을 축하했다.

▲저작상 = 신용하 《독도의 영토사 연구》(지식산업사)·이영란 《한국양형론》(나남출판)

▲출판상 = 사전 《한국한자어사전》(단국대출판부) 《힌디-한국어 사전》(한국외대출판부)·문고 《문학과지성사시인선》(문학과지성사) 《뎡퀸클래식》(펜앤던북스)·전집 《한국현대대표소설선》(창작과비평사) 《조지훈전집》(나남출판)·기획 《한국의 도시》(열화당) 《서양인이 본 조선》(호산방)·편집 《김치 천년의 맛》(디자인하우스)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학교재)·사료 《광개토왕비원석탁본집성》(동국대출판부) 《고은님 여회음고》(고구려)·번역 《빌헬름 마이스터의 전성시대》(민음사)의 안삼환 《그라마톨로지》(민음사)의 김성도·아동 《임석재민속동요》(고려원미디어) 《특선동시집》(예림당)·사진 《한국의 자원식물》(서울대출판부) 《몽골》(한국사진연구원)·예술 《아르비방》(시공사) 《한국도예》(홍익대도예연구소)·장정 《서양현대미술의 기원》(시공사) 《인간과 상

징》(열린책들)·제작 일지사

#### '한국번역대상'에 김석희씨 수상

한국번역가협회(회장 류근주·국제번역가연맹(FIT/UNESCO) 한국대표기관)는 지난 2월 4일 프레지던트호텔 18층 연회장에



왼쪽부터 김석희·전병석·류근주·고은씨.

서 제1회 '한국 번역상' 시상식을 가졌다. 한국번역가협회가 주관하고 KBS문화사업단이 후원한 이날 시상식에서는 '한국번역대상' 수상자로 한역(韓譯) 부문은 《로마인 이야기》(번역자 김석희)가, 외국어역 부문은 고은씨의 《조국의 별》을 번역 《Die Sterne Über Dem Land Vater》한 지그프리드 샤르슈미트·최운정 씨가 수상했다.

'한국번역출판상'은 우수 저작물을 번역출판한 공로를 인정받아 문예출판사의 전병석 사장이 수상했다. (725-0506)

#### '좋은 어린이책 원고' 대상 선정

창작과비평사가 공모한 '좋은 어린이 책' 원고 대상에 채인선·조은수씨가 선정됐다. 채인선씨는 《전봇대아저씨》의 11편의 동화(창작부문)로, 조은수씨는 기획동화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비창작부문)로 수상. 대상 수상자들에게는 상패와 상금 500만원,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 참관 및 유럽 문화기행 혜택이 주어진다. (718-0543)